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1760~1801)



1760년 경기도 마재의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정약종은 1786년 형에게 교리를 배워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 천주교 교리를 깊이 이해하게 된 그는 세례를 받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경기도 광주로 이주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그는 자주 한양으로 올라가 성사를 받고 교회 일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가 쓴 한글 교리서 「주교요지」는 주 신부의 승인을 얻어 널리 신자들에게 보급되었고, 이때 만들어진 평신도 단체 ‘명도회’의 초대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정약종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되었다. 그는 엄한 형벌과 문초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신앙을 증거하였다. “천주를 높이 받들고 섬기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천주는 천지의 큰 임금이시오, 큰 아버지이십니다. 천주를 섬기는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이는 천지의 죄인이며 살아 있어도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참수형을 받을 때 “땅을 내려다보면서 죽는 것보다 하늘을 쳐다보며 죽는 것이 낫다.” 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순교하였다. 때는 1801년 4월 8일,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16주일 · 농민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54(53), 6.8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받치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제1독서

창세 18, 1-10L

화답송

시편 15(14), 2-3ㄱ.3ㄴㄷ-4ㄱㄴ.5(◎ 1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많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골로 1, 24-28

복음 환호송

루카 8, 15 참조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루카 10, 38-42

영성체송

시편 111(110), 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마르타



베타니아 전경. 현재 분리장벽으로 막혀 있다.

예루살렘의 올리브산 동편에는 베타니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 자치 기구에 속해 분리장벽으로 막혀 있는데, 마태 21,17-19에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장소로 나옵니다. 사실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며 나무를 죽게 하신 일은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여 꾸짖고 가르침을 주시려 한 일종의 상징 행위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내지 못하고 들포도로 변질되었음을 질책한 이사 5,2,7; 예레 2,21 등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 시대 베타니아에는 라자로와 마리아, 마르타 남매가 살았습니다. 이곳 지명의 뜻은 ‘무화과의 동네’ 또는 ‘가난의 동네’로 추정됩니다. 특히 나병 환자 시몬이 베타니아에 살았고(마르 14,3) 라자로도 그곳에서 앓다가 죽었음(요한 11장)을 생각하면, 가난한 병자들이 많은 동네였던 듯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주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땐, 라자로 남매의 집에 자주 머무신 것 같습니다. 요한 11,3에서 마리아와 마르타가 자기 오빠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 칭한 점에서도 예수님과 이들 남매의 사이가 각별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들르셨다는 “어떤 마을”(루카 10,38)도 베타니아로 보입니다.

사실 루카 10장에는 중요한 두 개의 대목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하나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29-37절)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야기(38-42절)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으뜸으로 알려주신 두 가지 사랑(10,27)을 각각의 본보기로 제시하려 한 의도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제1계명인 하느님 사랑은 마리아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 다음 계명인 이웃 사랑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맞아들이게 된 마르타는 주님을 환대하고픈 마음에 몹시 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종들게 내버려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와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손님 환대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음식을 장만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손님 곁에서 그분 말씀을 듣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는 것도 큰 환대입니다. 게다가 그 손님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예수님이시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타가 저마다 자기 몫을 택하였으며, 무엇을 택하였든 그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이는 자신의 선택처럼 타인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것을 질투하거나 빼앗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 수행

「교회헌장」 제11항

「교회헌장」 제11항은 “사제 공동체”로서의 하느님 백성이 “성사와 덕행”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11항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것으로 하느님 백성의 삶을 성사인 교회 안에 머물게 합니다. 따라서 ‘각 성사 안에서’ 하느님 백성은 성사의 배령자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자격과 사명의 차원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이 소개됩니다. 하지만 하느님 백성은 ‘세상 안에서도’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선포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제직을 수행할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교 예배를 드리는 자격으로서의 인호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하느님 백성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은 가시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은 교회와 더욱 완전히 결합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신적 희생 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전례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고, 영성체를 통해서 일치를 이룹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은 하느님의 은총을 저버린 것에 대해 하느님의 자비로 용서를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화해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상처를 입힌 교회 공동체와도 화해합니다. 공동체는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고해성사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병자성사에서 병자들에게 하는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 전체는 수난하고 영광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드리며 치유를 청합니다. 또한 병자들은 자신의 병고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결합하여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합니다.

성품성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하도록 세워집니다. 하느님 백성은 사제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과 은총 그리고 은총을 증재하는 직무가 필요합니다. 그 직무자의 인도로 그리스도와 일치한다는 것을 하느님 백성은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제직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혼인성사의 은총은 부부가 부부 생활, 자녀 출산, 자녀 교육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성덕에 이르도록 합니다. 혼인으로 가정이 생겨나고, 가정에서 인간 사회의 시민이 태어나며,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하느님 백성을 이룹니다. 최초의 복음 선포자인 부모는 가정 교회 안에서 자녀들의 고유한 소명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최초 복음 선포자로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을 수행한다.
〈카니지아니의 성가정〉
라파엘로 산치오
1507년경
알테피나코테크
(독일 뮌헨)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 8,26)

통증 완화를 위해 입원한 폐암 말기의 50대 남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는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보던 중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진통제라도 맞기 위해 급한 대로 일반병동 1인실에 들어와 있었다.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하고서 병실 벽을 등진 채 옆으로 누워 쇠소리에 가까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에게 남은 힘을 모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에만 쏟고 있는 거 같았다. 하지만 정작 환자를 만나고 나선 도리어 마음이 놓였다. 병실에 들어서기 전 복도에서 들었던 소리로 상상했던 모습보다는 나왔기 때문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환자 방문을 하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기계음이 계속 들려와 신경을 건드렸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전에 방문했던 폐암 환자의 힘든 숨소리를 기억할 수 있었고, 그것이 병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발걸음이 환자의 병실 쪽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복도에서 유독 더 크게 들리는 고통의 소리 앞에 나는 조금씩 얼어붙었다. 숨쉬는 것도 힘겨운 환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병실에 들어선 이상 나는 용기를 내어 환자의 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숨 쉴 때마다 고통으로 온몸이 들쭉거리는 환자의 모습을 직접 보니 나는 도저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신부님” 환자가 짧은 숨을 내뿔듯 나를 불렀다. 숨쉬는 게 고통인 환자가 먼저 말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나는 “네?” 하고 놀라 대답했다. 환자가 나

를 보면서 “쌔액! 쌔액!” 하는 숨결에 한마디씩 힘들여 말을 실어 올렸다. “기도를!” “하고!” “싫은데!” “정말!” “숨이!” “차서!” “더는!” 환자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다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고통을 참느라 크게 뜬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니 이제는 “흐익!” “흑!” 하는 울음소리가 환자의 숨결에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나의 주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앞에 바짝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고통스럽기만 해 보이던 이 환자의 숨결에도 안타까운 울음이 났을 수 있고 간절한 기도가 실릴 수 있음을 나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주신 거다. 환자를 만나기 전부터 내내 신경 쓰이던 그 발은 숨소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환자를 대신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올리시던 성령의 간구였음을 알아차리게 하신 거다.

그제야 나는 환자가 했던 그대로 그의 울음 섞인 숨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은” “아버지” “하느님” “한숨한숨” “힘겹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 순간을” “더없는” “찬미와” “찬송으로” “받아” “주시고...” 환자의 숨결 따라 한마디씩 올리는 나의 기도엔 작은 리듬이 생기더니 환자의 숨소리에 실리던 울음소리도 찾아들었다. 숨 쉴 때마다 고통으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쇠를 긁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환자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숨결로도 기도할 수 있음을 친히 일러 주신 덕분이었다. 🍀



교구 소식

제30회 농민주일 기념미사 및 직거래 장터

일시 7/20(주일) 11시 미사
주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장소 덕정 성당 (직거래 장터 09시~13시)
문의 031-850-1491 생태환경위원회

2025년 신앙교육원 여름 계절학기

일시 7/23~8/27, 매주(수) 19:30~21:40 [6주간] 장소 신앙교육원 본원 (의정부)
대상 신앙교육원 졸업생 및 재학생 모집 선착순 100명 (대면)
회비 12만원 (대면/비대면 동일) 강사 송혜경 박사, 강지숙 박사, 주원준 박사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 영상 강의는 누구나 신청 가능,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8/1(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고3, 일반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8/3(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제36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공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9(금) 19시 ~ 31(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8 가정사목부

신청 ▶



한마음 성경공부 3단계 - 바오로 서간을 통한 바오로의 영성

주제	일시 / 본관 대강당	일시 / 통나무강당
제1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회심 안에 담긴 영성과 바오로 서간 개요	9/1(월) 14시	9/6(토) 16시
제2강 바오로 사도의 순례 여정	9/8(월) 14시	9/13(토) 16시
제3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구원과 성찬	9/15(월) 14시	9/20(토) 16시
제4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교회와 성령	9/22(월) 14시	9/27(토) 16시

회비 1인 8만원 [총4회, 교차 출석 가능]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모든 신자들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선번호 211)

신청 ▶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9/13(토)~14(주일) [1박], 9/26(금)~28(주일) [2박], 10/17(금)~19(주일) [2박], 11/7(금)~9(주일) [2박]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박] 8만원, [2박] 15만원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순교자공경 성가대 단원 모집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시편 69,31)

Misterium Fidei 한국 천주교회의 주보이신 성모님과 순교자를 공경하며

순교 성지에서 봉사하고 순교 신심을 함양하는 성가대 단원을 모집합니다.

첫째·둘째주: 양주순교성지 봉사 / 셋째주: 전국 성지 순회 봉사 / 마지막주: 휴식

문의 010-7102-3423 최민호 마르코 신부,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7/25(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마음과 육체적 치유
강사: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여름피정(우도섬포함): 8/1(금)~3(주일),
8/7(목)~9(토), 8/11(월)~13(수),
8/15(금)~18(월), 8/21(목)~23(토)
자연순례: 9/1(월)~3(수), 10/2(목)~4(토),
10/11(토)~13(월), 10/16(목)~18(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9/25(목) 17시 ~ 28(주일) 16시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집
지도: 김연수 신부 (예수회)
회비: 30만원 /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문의: 064-739-0951

가정 회복 기도와 미사 - 고해성사, 상담

일시: 7/21(월) 13시~16:30 (말씀과 시를 통한 치유)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가족의 갈등과 화해)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영신수련 9박10일 피정: 8/4(월)~13(수)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8/29(금)~31(일)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부부 나들이 피정

일시: 10/11(토) 14시 ~ 12(주일) 17시, 아론의 집
회비: 20만원 (1부부 / 비신자 참여가능)
계좌: 신한 131-022-218086 가정선교회
(입금 후 연락필수)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문의: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 피정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 14시 ~ (주일) 14시
회비: 2만원 (1박3식, 청소년 무료)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25(금)~28(월), 8/15(금)~18(월),
8/22(금)~25(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본당별 출장피정)

사제,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말씀 성가정 피정 : 8/8(금)~10(주일)
우도: 8/16(토)~18(월), 8/23(토)~25(월)
생태순례: 9/15(월)~17(수), 9/26(금)~28(주일),
10/1(수)~3(금), 10/12(주일)~14(화),
10/27(월)~29(수)
성지순례(추자도): 9/9(화)~12(금),
10/16(목)~19(주일), 11/22(토)~25(화)
장소: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시~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강사: 7/22 이상기회장
문의: 010-5514-4077 화장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8/4(월)~7(목), 8/28(목)~31(주일)
성경완독: 8/15(금)~23(토), 9/19(금)~2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교육 · 모집 ▶▶

평내 성당 관리장 채용

인원: 1명 (계약직 1년, 근무평정 후 정규직전환)
대상: 세례성사를 받은지 3년 이상인 교우
업무: 시설관리, 미화, 방호업무, 문단속
근무: 주40시간 내외 (주말근무 포함, 주중 1일 휴무)
제출: 이력서, 교적증명서, 주민신부님추천서, 자격증사본
접수: 7/31(목)까지, 우편접수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56번길 17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 전화문의 사절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하게 하는 프로그램 [10일, 100만원]
날짜: 9/15(월)~24(수), 10/13(월)~22(수),
11/17(월)~26(수), 12/8(월)~17(수)
장소: 강원도 홍천 / 대상: 60세 이상
문의: 010-7451-9707

시스피나 일산 합창단원 모집 - 혼성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지휘
그레고리오 성가,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연주
문의: 010-9842-8818 (남성단원 환영)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피아타스 시니어 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성가, 합창 경험 있는 가톨릭신자
연습: 매주(화)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지휘자

길음동 성당 성령기도회 - 은총의 밤

날짜: 7/23(수) 17시~21시
장소: 길음동 성당 소성당 (길음역 3번 출구)
강사: 박효철 베네딕도 신부
내용: 묵주기도, 미사, 가르침, 안수, 성체강복
문의: 010-9248-8151

2025 가톨릭 성가 페스타 참가 신청

날짜: 10/25(토) / 장소: 서울 Hilton호텔아트센터
1부 - 가톨릭시니어합창제 4팀
(평균연령 55세 이상)
2부 - 가톨릭성가대 코랄콘서트 10팀
(본당 모든 성가대 경연)
접수: 8/10(주일)까지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관산동 성당 사무장 모집

대상: 세례 받은지 3년 이상인 교우,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PPT) 사용 가능자
근무: 주 40시간 (토·주일 근무, 주중 2일 휴무 - 추후 협의)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급여: 의정부교구 인사·급여 규정에 따름
채용: 1차 서류, 2차 면접 (서류 합격자 개별 통보)
접수: 7/29(화)까지, 방문 및 우편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966번길 38 관산동성당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선한목자예수수녀회	7/27(주일) 14시~17시	서울 길음동 본원	010-4882-9674

마석 성당 교중 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전공자

서류: 자원봉사신청서, 이력서, 교적증명서

접수: 이메일 kth0643@uca.or.kr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8368-5645 성가대 단장

031-593-4231 사무실



안내 · 기타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2(월)~26(금) 베트남 중부 (140만원)

10/14(화)~24(금) 동부 유럽 4개국 (510만원)

10/16(목)~27(월) 유럽 성모발현지 (510만원)

11/10(월)~21(금) 멕시코, 페루 (795만원)

문의: 02-2281-9070

멕시코 성지순례 - 10박11일

11/25(화) 성모발현지 과달루페, 칸쿤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사별 가족 회복 프로그램 <위로의 샘>

일시: 10/17~12/5, 매주(금) 14시~17시 [총8회]

장소: 황사영순교순례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가마골로 270)

대상: 사별의 상실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

문의: 010-9056-2344 서성자 아녜스

이태리 정기회년 성지순례

9/18(목) 이태리 성체기적성지 (9일, 아시아나)

지도: 이환규 안드레아 신부

문의: 010-5909-5997 성심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에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직항)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 주변 수도원 순례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1/21(금) 이태리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회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17(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조기개장

상시개장: 7/18(금)~8/17(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 이용 가능 / 그늘막, 주차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교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원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제12회

삶의 향기 수상작

시상식: 8월 19일(화) 15시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지선미 마리아 / 신곡1동 성당



마음을 돌려세우시는 성체조배의 힘
김정림 베로니카 / 의정부1동 성당

내 말 좀 들어 줘
이호연 미카엘 / 원흥동 성당



흔들림을 멈추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기까지
김형준 미카엘 / 신곡2동 성당

다시 시작하는 신앙 새내기 생활
김은아 엘리사벳 / 별내성당

환대 그리고 연대
기소영 로사 / 행신1동 성당

제12회 삶의향기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성체 (Communio) ①

미사 때 사제는 영성체 전, 나누어진 성체를 성반 또는 성작 위에 받쳐 들고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어린양”이란 표상은 탈출기(12,1-14.21-28)에서 유래하며,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묘사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이사 53,7)을 떠올려 줍니다. 또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외친 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라는 구절과 요한묵시록에 나오는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양’(5,8-12)도 떠올려 줍니다. 이때 들어 보이는 쪼개진 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이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에 신자들은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길 부탁한 백인대장의 청원(루카 7,6-7)에서 따온 기도문입니다. 곧 온전한 의탁과 겸손의 마음으로 참된 구원을 바라는 청원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에 앞서 성체와 성혈을 모시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피는 저를 지켜 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이 기도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51)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제는 신자들에게 성체를 배령(拜領)해 줍니다. 사제가 성체를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면, 신자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이 짧은 초대와 응답은 4세기 말 성 암브로시오 저서에 나오는 경문에 따른 것인데,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내 몸이다.”(마태 26,26; 마르 14,22; 루카 22,19; 1코린 11,24)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 신자들은 분명한 목소리로 “아멘”이라 응답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 안에 현존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또한 같은 성체를 나누어 모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도 일치합니다. 영성체(Communio)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 수직적 차원뿐 아니라 사람들 간의 수평적 차원에서도 ‘하나 됨’(Communio)을 이루어줍니다. ☸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봉소승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5일 야고보: 박창구, 최성권, 장근용

전 레

● 8월 성시간

일 시 : 8월 1일 금요일 오후 15:00

● 8월 성모신심 미사

일 시 : 8월 2일 토요일 오전 11:00

공 지 / 단 체

● 8월 병자영성체

8월 병자영성체는 쉽니다.

● 7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 7월 27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여름철 본당 미사 시간 냉방 안내

여름철 본당 미사 시간에 추위를 느끼시는 분들은
겉옷을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 2025년 교무금 책정 현황

총 세대	책정	책정율	납부	납부율
75세대	48세대	64%	46	61.33%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7월 20일	주송자	오정화 아네스
	양경희 루시아, 류은희 소피아	
7월 27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김남일 미카엘, 배현숙 헬레나	

우리들의 정성 (7/7 - 7/13)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9건 1,050,000원
주 일 헌 금 1,013,000원

● 보도블록 교체 헌금 2,250,000원

이창순 요셉 500,000원 장중환 필립보 100,000원
신은석 안젤라 300,000원 익 명 500,000원
장영진 베드로 200,000원 송해영 미카엘 500,000원
이잔디 카타리나 50,000원 최광규 비안네 100,000원
7/7부터 7/13까지 사무실에 납부한 내용입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664,000원
초봉헌 444,000원
이동준 요셉 200,000원
최성윤 안드레아 10,000원
유정규 안토니오 10,000원

- 금주의 복음 말씀 -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화답송



(후렴) 주 님, 당 신 의 천 막 에 누 가 머 물 - 리 이 까?